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3월 12일(목) 제 3278호

체납기업에 6조 개발…대한방직 특혜 논란

시공사도 없이 기공식 강행
체납기업 자광에 도유지 매각 추진
도의회, 200억 공유재산 처분 제동
시민단체 "정경유착 의혹" 제기

시공사도 없이 기공식 '납득 불가' 밀어주기 지난달 11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개최된 자광의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에 우범기 전주시장, 전은수 자광 회장,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사진=우범기 전주시장 블로그>

시공사도 선정되기도 전에 성대한 기공식을 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 각종 특혜의혹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자광에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일단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북도가 부지 사용료도 내지 못하는 자광 측에 매각하려던 200억 원 규모의 옛 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이 도의회 상임위의 부결로 무산된 것. 도의회 행정위는 10일 도가 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건만 원안 처리하고 옛 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 건은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계획 안에서 삭제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전북도당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도는 자광에 대한 도유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도의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진보당은 이날 "일반 시민들은 소액의 변상금도 완납해야 재산 매각이 가능한데 수억 원의 체납이 있는 기업 앞에서는 모든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며 "전주시와 전북도는 자광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것이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진보당 전북특별도당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자광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특혜 행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자금력과 실행력이 의심되는 부실기업 자광의 병풍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직격한 뒤 관련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자광이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고 시공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PF 자금 조달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며 "옛 대한방직 부지 세금과 임대료 등 약 11억원을 체납한 상태인 이 같은 기업에 6조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도가 최근 자광에 대한 약 200억원 규모의 도유지 매각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정도면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정경유착으로 부실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특혜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전북도당은 ▲도의 자광 대상 공유재산 매각 절차 즉각 중단, 체납 사용료 강제 회수 ▲전주시와 전북도의 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 전주지역 시민 노동단체들도 지난달 말 자광이 추진 중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민노 전북본부, 전주시민회 등은 지난달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주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광은 작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맡을 시공사 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도 체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11억 원을 체납한 자광이 6조4천억 원대에 이르는 부지개발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만큼 시는 당장 자광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해당 토지 공매를 통해 세금과 임대료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오현숙 도의원 "대한방직 개발 업자 편의봐주기식 행정" 지적

도정질문서 행정절차 문제 제기
"자광 재정능력 검증 필요
도유지 매각 추진 신중히 해야"

오현숙 도의원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1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전북도의 민간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보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지사는 자광이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답변을 했으나, 1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가능한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부동산 PF제도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해 오는 202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도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또 "전북도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과 인허가 권한이 전주시에 있는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결국 행정 편의는 제공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들어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사업은 지난 1995년 시작됐지만 31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업시설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핵심 시설인 타워 건설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역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전북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전 검증"이라며 "개발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 핵심 시설 이행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 뒤 마지막 남은 절차인 도유지 매각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행정은 개발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주올림픽 경제성 지표 '하향'…타당성은 유지

한국스포츠과학원 1.03→0.91 정정
기준연도 적용 오류 확인
AHP 종합평가 0.620 도출

전북도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부처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지표(B/C)가 기준연도 적용 변동으로 경제성 분석이 정정됐으며, 종합평가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해 B/C 값을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전북자치도로 통보했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기관에 경제성 분석 결과 재검토와 B/C 변경에 따른 AHP 종합평가 재실시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요청했다.

이에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종합평가를 재실시해 지난 9일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재산정 결과 B/C값은 하향됐으나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도출됐다.

AHP(계층화분석법)는 단순 경제성 분석을 넘어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이 중 정책적 타당성은 사업의 공익성, 역량, 주민 여론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통상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예산처)에 따라 AHP 점수가 0.5 이상일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B/C값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 지표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향후 예정된 정부 심의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제반 준비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전북도민 건강지표 전국 상위…음주·흡연율 최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흡연·음주·스트레스 지표 상위권
고혈압·당뇨 치료율 95%대
신체활동 실천율은 과제

전북도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민의 건강 수준과 주요 건강지표 현황을 공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월간 음주율은 52.2%로 전국 평균(57.1%)보다 낮았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흡연율,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고위험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주요 건강행태 지표에서도 전국 상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만성질환 관리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95.2%,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94.7%로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등 일부 건강행태 및 질병 인지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별 건강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도민 12,374명(시군별 약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258개 보건소가 매년 실시하는 통계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현황 등을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 속 건강실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복지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 최종 선정

남원·임실·순창 면지역 대상
심리·영양·주거 맞춤 지원
방문형 돌봄서비스 중심 운영

전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남원·임실·순창 3개 시군 면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취약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취약지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돌봄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해 의료·복지·생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서비스 제공 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보완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을 포함해 인천,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전북은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지역을 중심으로 심리·영양·주거·운동 서비스를 결합한 '온감 패키지'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남원시>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형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지원해 현장 서비스를 뒷받침한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국 공모에서 전북이 선정된 것은 농촌 취약지의 수요를 정확히 짚고 실제 작동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한 결과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농해수 정책조정위서 개혁 논의
중앙회 감사위 신설 검토
감사 기능 별도 특수법인 분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의를 열고 농협 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농업계, 시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서, 당정협의에는 원승연 단장(공동단장, 명지대 교수)도 참여하여 그간의 추진단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농협개혁 방안은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이다.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는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하여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선고된 임직원의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는 중앙회장 등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인사·경영 등의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금품선거 문제와 조합장들만 투표하는 現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조합원 직선제도, 선거인단제도* 등의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지방선거(6월) 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개혁방안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입법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3월 마무리)를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

지역	후보자 (이름 가나다순)	본경선(3일)	결선(3일)	비고
전북	김관영	4.8.(수) ~ 4.10.(금)	4.16.(목) ~ 4.18.(토)	3인 본경선 (2인 결선)
	안호영			
	이원택			
제주	문대림	4.8.(수) ~ 4.10.(금)	4.16.(목) ~ 4.18.(토)	3인 본경선 (2인 결선)
	오영훈			
	위성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 02-2630-0064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전북타임스>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내달 8~10일

과반 없을 시 결선 16~18일
당원 50%+여론조사 50%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는 4월 8~10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2위를 대상으로 16~18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북과 제주지역 후보 경선 일정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을 확정했고, 제주 지사 후보에는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을 확정한 바 있다.

경선방법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여론 50%이다. 경선에 따른 후보 자간의 토론 일정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김영묵기자

이원택, '정년 65세 상향' 정부 입법 추진 "환영"

이원택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는 11일 "정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해 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제도 개편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이로 인해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숙련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후보는 "정년 65세 논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노동체계 전환의 출발점"이라면서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전북과 같은 고령화 지역이 이번 제도 변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고령 일자리 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형 노인복지 본격 가동

돌봄·일자리·여가 아우르는 '전주형 통합돌봄' 어르신들 삶의 질 높여

전주시가 보건·의료와 일자리, 여가, 시설 인프라 등 전주형 노인복지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시는 올해 '전주형 통합돌봄' 원년으로 삼고 노인복지 전 분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체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도시로서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에 돌입한다.

시는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850여명이 병원 대신 자택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방문 진료와 방문 재활 등 신규 보건의료 서비스와 영양 도시락, 주거환경 개선 등 9개 분야 101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했다.

특히 거동 불편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의 경우 전담 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진료, 약국 방문까지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연간 3000건 이상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아 향후 의료 접근 취약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부족한 돌봄서비스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통해 이미용과 폐가구 처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20개를 지원한다. 또, 434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취약계층 노인 6523명에게 안부 확인 등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완성키로 했다.

여기에 시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올해 300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주시 노인인구의 약 62.4%인 7만7000여명에게 지급된다. 올해 매월 지급 액수는 1인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부부 최대 559,520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또 시는 올해 총 8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6,559명에게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시는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단순 환경 정비 위주의 공익활동형 사업을 넘어, 60세 이상 신노년 세대에 적합한 역량 활용 일자리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 및 치매 요양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노후 안전망'도 구축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오는 4월 3일까지 전주시민대상 추천 접수 8개 분야, 모범시민상 5명 선정

전주시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을 찾아 시상하기로 했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도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의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전주시민대상'과 '모범시민상'은 전주시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온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도 불린다.

지난 1963년 '전주시민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전주시민대상은 현재까지 60여 년간 현재까지 총 337명이 배출됐다.

시는 올해 △효행대상 △교육학술대상 △문화예술대상 △산업·기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체육대상 △환경대상 △복지대상 등 총 8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평소 성실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 5명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주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전주시 소재 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해당 부문 소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추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심사를 거쳐 5월 초까지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6월 19일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귀빈으로 초청된다.

아울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 동부권 노인복지 거점 '아중노인복지관' 개관

11일 개관 인후3동주민센터 인근 노인복지 서비스 본격 운영 지역사회 노인 복지 거점 역할 기대

전주시 동부권을 대표하는 노인복지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1일 우아동과 인후동, 아중지역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아중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공연과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복지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복지 거점의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관한 아중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고령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후3동주민센터 인근 전주아중누리돌봄센터(덕진구 가재미로 47)에 총사업비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821㎡에 지상1·2·5층의 3개 층으로 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됐다.

주요 시설은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관은 앞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 상담 및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중노인복지관은 앞으로 평생교육과 건강 증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사회 노인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중노인복지관이 문을 열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한층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능력 강화

공무원·경찰·주민 등 합동 훈련 실시

전주시가 봄철 대형 산불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1일 완산구 원석구경로당 일원에서 시청 산림공원과와 완산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산림재난대응단, 마을 주민 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건조경보 발령 중 최대순간풍속 20㎳ 이상의 강한 북동풍이 불어 산불 화선이 민가로 급격히 확산하는 '초고속 산불'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훈련은 오전 9시 30분경 완산구 덕천사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한 신고 접수와 함께 시작됐다.

이후 시는 즉시 산불확산예측도에 기반해 단계별 재난문자를 발송(가정)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긴급 상황을 전파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1차 대피소 사전 이동 조치 △대피 명령에 불응하는 거주자에 대한 경찰 협조 기반 강제 대피 조치 등이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즉각 반영하고,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청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출범

현대차그룹 9조 프로젝트 전담 로봇·AI·수소융합 글로벌 미래산업 허브 구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추진본부(T/F)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해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추진본부(T/F) 운영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관계기관 협력 강화, 로봇·AI·수소 산업이 융합된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활용해 로봇 제조, AI데이터센터와 수소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AX),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케이 인공지능(K-AI)시티 실현 등의 국정과제가 새만금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극단, 제134회 정기공연 '따르뛰프'

웃음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위선

전주시립극단(예술감독 겸 연출 이수인)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덕진예술회관에서 제134회 정기공연인 '따르뛰프'를 선보인다.

공연은 3일 동안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에 각각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프랑스 고전 희극의 거장 몰리에르(Moliere)의 대표작 '따르뛰프'를 전주시립극단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위선적인 신앙과 권력, 인간의 욕망을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로 풀어낸다.

이야기의 배경은 부유한 귀족 오르공의 집으로, 그는 교회에서 만난 '따르뛰프'를 경건하고 신실한 인물로 믿고 집으로 데려와 성자처럼 떠받든다. 그러나 오르공의 가족들은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의심하고 경계한다.

오르공은 가족들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뛰프를 더욱 신뢰하며 딸 마리안느를 결혼시키려 하고 재산까지 맡기려 한다. 이후 따르뛰프가 오르공의 아내 엘미르에게 접근하면서 그의 위선이 드러나고, 오르공은 뒤늦게 진실을 깨닫게 된다.

전주시립극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고전 희극이 지닌 풍자와 유머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웃음 속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나루컬쳐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협의체 활동 돌입

2026년 첫 정례회의 개최

지난해 구성된 전주시 청년협의체가 2026년 첫 정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11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협의체 위원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협의체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연간 운영계획과 2026년 전주시 청년정책 및 달라지는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6년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경제·문화·환경·인문·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위원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청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 청년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수행기관' 모집

보건의료·돌봄·일상생활지원 6개 분야 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전주시는 오는 4월 '2026년 의료-돌봄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앞서 서비스를 함께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은 △낙상예방작업치료 △가사 지원 △대청소 및 방역 △영양더하기사업 △스마트돌봄플랫폼 운영 △통합돌봄 거점공간 운영사업 등 총 6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시청 별관 3층 노인복지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며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지방환경청>

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51억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치수 안정성 및 친수·생태공간 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7개 기초지자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51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하천법상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동진강 수계를 관리하는 전북자치도와 7개 기초지자체에 매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 7개 기초지자체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이다.

각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국비는 국가하천 하천시설물을 점검·보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예초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유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하도정비사업 및 지장수목 제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기후 위기에서 안전한 국가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환경청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수생태계가 건강한 만경·동진강으로 가꾸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주요 위반행위 현장 단속

전북경찰은 1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봄 행락철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특별대책에는 △교통경찰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이 총동원된다.

경찰은 "경찰이 항상 보인다"는 인식속에 위반행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월 9일부터 3주간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특별주의기간'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중심 홍보 △운전자 보행자보호 위반 △보행자의 신호위반·무단횡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륜차·PM자전거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법규위반 장소·대학가·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경찰을 배치해 주요 위반행위를 현장 단속을 한다.

특히 봄맞이 행사·축제 등 행락철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 억제하기 위해 주·야간 상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전북청 주관으로 일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사고 시 대형(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이용자와 사업용 화물·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봄철 졸음운전 2차 사고 예방 그리고 크루즈컨트롤 사용 시 주의 등을 집중 홍보·교육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농진청 개발 찰벼 '미르찰' 소비 확대

일반 찰벼보다 수확량 25% 많고 가공특성 우수 제과한과 업체 관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공용 다수성 찰벼 '미르찰' 소비 확대되며 전국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르찰'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가공용 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개발한 다수성 찰벼 품종이다.

또 '미르찰'은 일반 찰벼 대비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가공적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쌀가루 가공 특성이 뛰어나 제과 및 한과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진찰'보다 수확량이 25% 많고, 제과 및 한과용으로 가공적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찹쌀가루 입자가 매우 작고 유과를 만들 때 수율이 높다.

'미르찰' 재배면적은 초기 보급 단계였던 2020년 19헥타르(ha)에서 시작해 2021년 271헥타르, 2022년 596헥타르로 증가했다.

최근 660헥타르 수준까지 확대되며 가공용 벼 품종 중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북, 충남,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단지가 형성되고, 가공용 원료곡 수요 증가와 계약재배가 확대되면서 재배면적 증가를 이끌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존 찰벼 품종 대비 약 25% 높은 수량성이 농가 경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공 특성이다.

찹쌀가루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물성이 안정적이라 유과 및 제과 가공 시 수율이 높다.

유과 제조 시험 결과, '미르찰' 수율은 기존 품종 대비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관능 평가에서도 외관, 식감, 기호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최근 유과 및 한과 제조 업체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농진청>

일부 가공업체에서는 산업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가공적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쌀가루 기반 가공 제품 확대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일반 찰벼 대비 원료곡 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계약재배 농가 기준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농가 소득 향상과 가공업체 원가 절감 효과가 동시에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재배 안정성 검증, 가공 기술 연계 연구, 산업체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미르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르찰'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경지이용작물과 이종희 과장은 "'미르찰'은 높은 수량성에 더해 가공산업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전략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가공적성이 우수한 다양한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농촌 의료·돌봄서비스 확대

전북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과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11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농촌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과 전북사회서비스원 '돌봄·여가 서비스'를 연계해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그동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왔다.

전북사회서비스원 또한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농협과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농촌주민들에게 진료·건강상담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전북사회서비스원의 돌봄·여가 프로그램을 연계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지역 의료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인공지능 업무혁신 본격화

이사장 직속 조직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1일 이사장 직속 조직인 'NPS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개최했다.

위원장(이사장) 1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 전략위원회는 앞으로 공단의 인공지능 중장기 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또 공단 인공지능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며 성과 관리까지 총괄한다.

전략위원회 산하 △전략경영 △인력양성 △데이터 △연구·개발 △윤리·보안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업전략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함으로써 공단의 인공지능 전략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과 전체회의에서는 외부위원과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국민연금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언, 인공지능 기본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직원들이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또 행정 절차와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먼저 제공하는 방법을 살피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인공지능 전략기구 출범을 계기로, 국민은 쉽고 편하게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직원은 힘들고 복잡한 일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인터배터리 2026' 기업공동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전북 기업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알리기에 나선다.

도는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북 기업공동관을 운영하고 도내 유망 이차전지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배터리 2026'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로, 모바일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중대형 배터리 분야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소개된다.

올해 전시회에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약 700개 기업이 참가하며, 배터리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더 배터리 컨퍼런스', 투자 세미나,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홍보 중심 전시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도내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기업공동관'형태로 전시를 운영한다.

공동관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인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넥스젠 △비원솔루션 주식회사 △㈜코솔러스 등 4개 기업이 참가해 핵심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인터배터리 참가는 도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경진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바이오 포럼' 개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20개사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1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협약식 및 바이오 스타트업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진원이 전국 6개 최종 주관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협력해 공간·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연구자원·전문인력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한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진원은 올해 2년차 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2월말 바이오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했다.

이번 바이오 스타트업 인사이트 포럼에는 전북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20개사를 비롯해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사업 협약을 진행하고 2026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큐제네틱스 김지완 전무이사의 '바이오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에서는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전략 △정부 지원사업 로드맵 △글로벌 진출 및 인허가 △임상·실증 지원 절차 등 바이오 스타트업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전북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는 올해 2년 차를 맞아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실증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장 안전점검 개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는 2026학년도 2학년 대상 장기현장실습교육에 맞춰 전국 150여개 실습 농·어장에 대해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한다.

한농대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월 중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3월 안전 점검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2026년에는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 및 실습장 안전교육 △전공교수 실습생 관리 등 실습 전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6년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 선정(2025년: 4월 → 2026년: 2월)해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5월 → 3월)하고 점검 횟수도 확대(연 3회→4회)한다.

또 실습 농어장에 대해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해 실습장별로 농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작업 안전 전문 교수와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통한 실습생과 실습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실습생을 대상으로 연 4회 전공별 소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장에 대해 현장 안전 점검과 연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실습생에 대한 실습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현장실습센터를 운영해 실습생 안전 및 고충 관리를 강화하고, 전공 지도교수별 전담 실습장 지정·관리 및 실습생에 대한 주간 단위의 실습일지 점검도 추진한다.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2학년 장기현장실습 교육은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이다"며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백구농협 "영농부산물 소각 ZERO" 앞장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1일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소재 포도농가에서 백구농협(조합장 장승환)과 함께 '소각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수고 경작지에 뿌리면서 그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토양 환경 개선, 산불예방 등 1석 3조의 효과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며 친환경 농업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데 의미를 뒀다.

특히 본격적인 농사철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 같은 건조한 시기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승환 조합장은 "영농부산물을 제때 수거하고 알맞게 처리해야 되지만 농촌사회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백구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파쇄기 및 영농자재 등 장비를 활용해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 확산 및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에 농가부담도 줄일 수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에 동참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자"며 "전북농협은 논·밭두렁 태우기를 포함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농업인 계도와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총 23개교 선정
자기 주도성·공동체 의식 함양 인재 육성

전북교육청은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이는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최종 23개교(초 7·중 11·고 5)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는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 의식'을 조화롭게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필수과제'와 '선택과제' 중심으로 운영한다.

필수과제로는 △학교 구성원 대상 헌법교육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이수 등 3개 과제가 있다.

선택과제는 △미디어문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다문화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지역역사 바로알기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에 교과 간 연계 수업을 활성화하고 토의·토론 기반 참여형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대하며, 당당한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교육청>

유치원 정보공시, 유아나이스 병행운영

중복 입력 부담 등 해소

도내 유치원들의 정보공시 입력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시 유아나이스를 병행하는 체계로 변경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공시자료는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제공된다. 올해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유치원 정보공시는 공시정보등록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은 유아나이스와 공시정보등록시스템에 동일한 공시자료를 각각 입력해야 했고, 이에 따른 자료 중복 작성, 반복 확인 등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에 유아나이스 병행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치원은 해당 시스템에서만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돼 중복 입력 부담이 해소되고 업무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분리·관리되던 공시 관련 데이터가 유아나이스 중심으로 연계·관리됨에 따라 자료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이번 병행 운영은 현장에서 제기된 이중 입력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개선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정보공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12월까지 149개교 대상
운영·장서관리 등 지원

전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2026년도 학교도서관 시스템 및 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전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서관 총 149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도서관 컨설팅은 업무별·시기별로 구분해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특히 도서관 전담 인력이 미배치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운영 컨설팅 △장서관리 컨설팅 △실무 연수 등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즉각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곁으로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가는 전주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새학기 활짝 열린 도서관에서 즐겁게 독서하는 학생들이 가득한 살아있는 학교도서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 사업 추진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강화

전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예술로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군산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예술로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 연계 문화 예술교육'은 오는 16~20일까지 5일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내 공립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총 12개교 3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학교자율형 모델' 형태를 새롭게 도입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한층 확대하고 학교가 교육과정과 학생 특성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맞춤형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성기 교육장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학교 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무주서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선수권 대회' 개막

전국 39개 팀·167명 참가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가 11일 무주에서 막을 올렸다.

무주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김철호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재경무주군민회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선수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제28회 대회가 무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무주대회가 승패를 넘어 존중이 넘쳐나는 품격 있는 스포츠 축제로 치러져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대회는 실업 펜싱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 펜싱 종목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실업펜싱연맹이 주최,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 김철호)과 전북특별치도 펜싱협회(회장 강동욱)가 공동 주관하며 무주군이 후원한다.

참가 선수들은 전국 39개 팀, 남녀 선수 16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플뢰레', '에페', '사브르' 종목을 뛰며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선수들은 "반딧불이의 고장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펜싱인들의 패기와 실력을 펼쳐 보일 수 있어 기쁘다"라며 "열심히 훈련한 성과가 무주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도 K-스포츠·관광중심지로서 무주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으로,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무주반딧불배 하프마라톤대회(3월 29일)' '무주덕유산 MTB 전국 자전거대회(5월 10일)', '현정화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5월 16일~17일)', '족구코리아리그(5월 2일~11월 29일)' '전국 유소년축구대회(5월 23일~5월 26일)'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7월 31일~8월 4일)' 등 총 27개 전국 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을 개최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 <사진=무주군>

전북교육청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담임 교사 연수' 개최

전북교육청은 11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담임(담당) 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백혈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며, 보호필요학생은 건강장애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질병·화상·교통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한다.

현재 도내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은 총 77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스쿨포유', 사단법인하나회 꿈사랑학교, 전북대학교병원 한누리병원학교 등을 통해 대면·원격수업 및 실시간 화상 강의 형태로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연수에는 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 전북대병원 한누리병원학교 관계자가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학적 관리 △수업 지원 체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자들의 궁금사항을 해소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와 보호필요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적 관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익산시, 영농철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도 운영

익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강화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익산시는 농업인의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특별근무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요일 특별근무는 함열본소를 비롯해 동부분소(금마면), 남부분소(오산면), 북부분소(망성면)에서 진행된다. 사업소별로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해 토요일에도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익산시는 올해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농업기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진압기와 휴립복토기 등 농업기계 5종 10대를 구입했으며, 이달까지 6종 17대를 추가로 구입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토요일 운영과 농업기계 확충 등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어업활동 공익적 가치 보장… '어업인 공익수당' 접수

군산시가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수산물 소비감소로 위축된 어업인 소득감소를 보전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활동 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 공익수당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군산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보호아동 위한 '가정위탁 부모' 상시 모집

군산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을 따뜻하게 돌볼 위탁가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군산시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경우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보조금과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원되며, 위탁부모 교육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가정위탁은 아동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돼주는 소중한 역할"이라며, "잠시 부모의 품을 떠난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목포간 철도 건설' 시군 협약

군산·부안·고창 등 5개 시·군, 국정과제 반영 공동 대응 논의

11일 개최된 군산 ~목포간 철도 건설 업무협약 <사진=군산시>

군산시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관계 시군 협의회가 11일 부안군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해안철도가 경유하는 군산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 지자체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서해안철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중앙정부 및 국회 대상 정책 건의 및 공동 방문 활동 △경제성 분석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 및 논리 개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활동 추진 △관련 학술포럼, 토론회,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 지자체들은 서해안철도 건설이 서해안권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교통망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철도가 건설되면 서해선~장항선~새만금선~서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군산 중심의 서해안 남북축 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해안철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 시군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철도(군산 새만금~목포)는 총 연장 약 110km, 총사업비 4조 7,919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관계 시군은 정례 간담회, 공동 용역, 정책 건의,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이웃연결단' 등 민관협력 안전망 가동

익산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문턱 낮아진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는 제도 변화에 맞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34건을 전수조사해 92건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했고, 수급이 중단된 748세대 중 215세대에 재신청을 안내했다.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 누락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권 책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됐다.

△민관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가동

제도 개선과 함께 시는 위기가구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인적 안전망인 '이웃연결단'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이처럼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나은정 복지국장은 "위기가구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인구·사업체 감소 등 도시 쇠퇴 요인 분석

군산시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시재생사업은 철거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의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해 지역 여건을 조사하고, 인구 감소·사업체 감소·주택 노후화 등 도시 쇠퇴 요인을 분석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해당 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수립하며 필요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월명동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중앙동1구역, 해신동1구역, 소룡동1구역 등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도시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 왔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고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새롭게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듯 도시도 전략계획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도시 경쟁력 회복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어르신 복지 환경 개선 여가 공간 확충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일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지역 시의원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복지관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이용 어르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요 시설의 공간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4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시비 4억원을 더해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번 증축 공사를 통해 143㎡ 규모의 경로식당을 비롯해 84㎡의 당구장, 41㎡의 소강당 등 총 268㎡ 면적의 시설이 새롭게 확충됐다. 특히 준공식 당일에는 복지관 후원금으로 마련된 특별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 측은 약 300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학수 시장도 직접 배식 봉사에 나서며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증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최대 1억 1천만원 지원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시와 관광공사에 따르면 신규 선정 지역 5곳(울산 중구 등)과 기존 선정 지역 16곳 등 전국 21개 기초지자체에서 5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부산 수영구, 광주 남구 등과 함께 기존 선정 지역에 해당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관광 관련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기존 사업체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다. 단, 정읍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체여야 하며 식음료, 여행, 숙박, 체험, 기념품 등 관광 관련 분야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는 정읍 관광두레 PD 상담을 거쳐 관광두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공동체의 자립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시와 관광공사는 신규 사업체 모집과 관련해 오는 23일 오후 1시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1층에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

익산시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일부터 '2026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북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3,96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소통의 날 개최…선거 중립 등 강조

정읍시는 1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지난 2월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비상근무 등 현안 업무에 매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민선 8기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이 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모든 부서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정읍 동학마라톤대회와 벚꽃축제 등 지역 주요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도 함께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련 제한 사항을 완벽히 숙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을 실무에 적극 도입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내달 개관

익산 노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이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이 모든 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문을 연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건립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지역 노인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남중동 회관은 건물이 낡고 공간이 좁아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방문하기 좋은 어양동으로 새 터전을 옮겨 신축 이전을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51억 8,600만 원이 투입된 새 회관은 2024년 8월 착공해 올 2월 완공됐다. 시는 이곳을 거점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대학 운영,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 핵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나은정 복지국장은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예타 선정

국비 1,354억원 규모 전북권 최초 국가주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추진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감도 <사진=김제시>

김제시는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역점 추진해 온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이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1,354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진봉면 (구)심포항 일원에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확산, 해양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에 미선정된 이후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기존 기본구상에 대한 보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보완에 힘써왔다. 특히,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제안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양에너지와 도시공학을 융합한 미래지향적 해양도시과학관으로 사업 콘셉트를 대폭 보완했다.

또한 지난 1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이후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온 점이 이번 대상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과학관이 조성되면 재생에너지, RE100, 신산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형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간 교육·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해양과학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KIPF)이 경제성(B/C), 정책성(AHP),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재생에너지, RE100, 신산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철저히 입증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16일부터 2026년 1학기 장학생 접수

반값등록금 등 4개 분야 지원…내달 13일까지 신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2026년 1학기 장학생 신청 접수를 위해 각종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장학생 선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4주간이며,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4개 분야에 걸쳐 신청받는다.

반값등록금은 국내 대학교 1~6학년 재학생에게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 중 국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생활비 100만원을 연1회 지원한다. 특기장학금은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대회 중 도(道)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이상(단, 전국대회는 3위 이상) 입상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부안군 소속 단체에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창업·취업 준비생 또는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농업후계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창업·취업 학원등록비 12개월분 중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권익현 이사장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해양관광 활성화 주민 복지환경 개선

고창군이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에는 고창군 부군수,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상하면 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다.

주요시설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락체험센터 △어업 편의를 위한 어구보관창고 △어촌계사무실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후포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환경도 대폭 개선됐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고창의 바다가 해양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력넘치는 고창 해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공무직노조, 단체·임금협약 체결

전년대비 기본급 2.77% 인상 등 합의

지난 10일 부안군-공무직 노조는 2025년 단체 및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안군>

부안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는 지난 10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말순 부안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단체 및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체협약 사항은 질병휴직 급여 지급, 질병휴직 기간 연장, 공무원 동일 특별휴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협약으로는 각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전년대비 기본급 2.77% 인상, 호봉구간, 정액급식비 인상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노동조합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노조가 소통하고 연결해 군정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함성 패키지' 추진

지역 정착·자립 기반 마련

고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함성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함성 패키지는 청년의 지역 정착, 자산형성, 구직활동 지원을 연계한 종합 지원사업으로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활력수당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고창군은 올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3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지역정착 지원'은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창업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6명을 선정해 12개월간 30만원씩 최대 36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창군은 올해 30명의 청년을 선발해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6개월 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올해 고창군에서는 37명을 선정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청년정책을 확대해 청년이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만금수목원 개원 대비 상생 협력사업 발굴

협업체계 선제적 구축

김제시는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 10월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에 대비해 상생협력방안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과 김제시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될 수목원 개원에 대비해 관련 부서에서 상생협력방안을 발굴, 향후 김제시 관광·농업·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구 유입 및 주거 지원 △수목원과 연계한 축제 활성화 △시티투어 확대 △플리마켓 운영 △시내버스 연장 △농특산물 판매부스 △휴양림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서 부시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단순히 하나의 관광시설을 넘어 김제시의 지역 생태계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랜드마크"라며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수목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민원 Clean 사무소 선정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11일 5년 연속 민원 Clean 사무소로 선정됐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시상식에는 NH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 등이 참석해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소비자보호 우수 직원의 사기진작을 응원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모든 임직원들이 민원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창군 대표금융기관으로서 지역금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는 민원 Clean사무소 전국 1등으로 선정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9억원 투입

김제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 관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지붕개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대상이며,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300여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1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350동, 비주택 60동, 지붕개량 6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은 1차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13개 읍면동 순회 마무리

김제시가 지난 2월 23일 신풍동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읍면동 순회 일정을 지난 10일 성덕면과 광활면까지 13개 읍면동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정 발전을 향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다.

시는 당초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루 1~2개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청하, 만경, 백산, 공덕, 용지, 백구면 6개 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와 축산농가 보호를 고려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6개 읍면 방문 일정은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는 시정 각 분야를 담당하는 실과소장들도 함께 참석해 소관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힘을 보탰다. 또,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 소관 민원에 대해서도 시 관련 부서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직접 안내하도록 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들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야말로 김제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라며 접수된 건의사항은 카드화해 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3일까지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식 어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를 매칭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어가당 1인 1회, 최대 100만 원(2026년 납입 대출이자분)까지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식업 면허·허가를 득하거나 수산종자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부안=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해빙기 경로당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심덕섭 고창군수가 해빙기를 맞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 관내 경로당을 찾아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 얼어붙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옹벽 붕괴, 벽체 균열, 지반 침하 등 시설물 전반에 걸친 위험 요인을 점검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물 외벽 및 천장의 균열·침하 여부 △옹벽 및 축대의 배부름 현상 △동절기 동파로 인한 배수로 파손 상태 등이다.

특히 지형적으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건립 연도가 오래된 노후 경로당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보이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고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6개 재해위험지구 정비 '속도'

1,777억 규모 올해 153억 투입
배수펌프장·유수지 신설
침수·풍수해 피해 예방

완주군이 기후 위기로 심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완주군은 총사업비 1,777억 원 규모의 6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이 중 2026년 사업비로 총 15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봉동 고천, 용진 구만, 소양 공덕, 화산 운산) 4개소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용진 신지, 운주 내촌)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봉동 고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을 기본계획으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및 사전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용진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을 계획해 오는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양 공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주시와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재 기본설계 공정률 90% 단계로 올해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산 운산지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 용진 신지지구는 펌프장과 유수지, 소하천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사전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 계획이다.

운주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철, 소하천 일부 정비가 이뤄진다. 2027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 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하천 범람 위험을 해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접수

보증금 100만원·월세 1만원
최대 6년 거주…20일까지 신청

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부영1차 아파트(용성로 207) 내 총 2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급 면적별로는 전용 49㎡(20평형) 15세대와 전용 60㎡(25평형) 10세대로 구성됐으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1명당 2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다. 신청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남원시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나이, 주소(주민등록) 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 세대원이 많은 가구, 주소지를 오래 유지한 신청자, 나이가 낮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농어촌 방과후 연계 '찾아가는 과학교실'

전북대 산학협력단 협력
AI·SW 체험형 교육 확대

순창군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과학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체험·탐구 중심의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물리·화학 등 과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전문 강사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체험형 과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달 중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실험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나눔과학교실 ▲학생들의 탐구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심화과학교실 ▲코딩과 소프트웨어 체험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SW과학교실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순창군>

특히 SW과학교실에서는 블록형 코딩과, 인공지능(AI)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과학적 현상을 직접 실험하고 탐구하는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과 협력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기초과학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과 디지털 역량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람천 하수 유출 재발 방지 종합 개선 총력

유출 사고 후속 대책 마련
하수관로 정비 366억 투입

남원시는 최근 발생한 미처리 하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하수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해 왔으며, 사고가 발생한 인월 중계펌프장 역시 지난 2025년 12월 진단 당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입체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사고 원인이 노후 수문의 이격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월·취암·용산 중계펌프장 3곳의 수문을 즉시 폐쇄하고 추가 유출 여부 점검을 마쳤다. 이를 통해 하수 유출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했으며,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도 마친 상태다.

또 3월 말까지 모든 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결과에 따라 노후 시설은 즉각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하수 유입량 급증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총 366억원을 투입해 기존 빗물과 오수가 섞이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1차 아영지구 20.5km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 2차 인월지구 7.1km 노후 하수관로는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남원시>

시는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주 1회 이상 시설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3월 20일 산내면에서 수질 유입경로 조사 결과 설명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만복사지일원 공중케이블 정비 공모 선정

과기부 공모 20억 규모 확보
도시미관·안전환경 개선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억원 규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년 ~ 2030년)'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는 만복사지 일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지는 남원만복사지(남원시 만복사지길 7) 일원이다. 총사업비 20억 원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지원하며, 공사는 오는 5월 착공해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파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대상 지역에 대한 세부 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전신주와 배전설비 등에 설치된 전력 및 통신케이블의 재정비로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하고 감전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남원만복사지는 조선시대 김시습의 '금오신화' 에 수록된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남원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학교·어린이 급식에 33억 투입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심의
로컬푸드 급식 활성화 추진

완주군이 지난 10일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급식의 안정적인 지원과 로컬푸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종훈 부군수를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학교와 어린이 급식 및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와 완주군의회 부의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대표, 복지급식 단체 대표, 생산자 단체 대표, 전북도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사업 결산 보고와 함께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어린이집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와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은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친환경(쌀)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식재료 구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특히, 로컬 가공품 지원사업은 군비 100% 운영되는 자체사업으로 지역가공품 구입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군은 올해 본예산으로 총사업비 33억 4,000만원을 확보해 학교급식에 32억 7,000만원, 어린이 급식에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140개소 1만 1,032여 명이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받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 2260억 신청

정책심의회서 사업안 의결
101개 농림축산 사업 반영

남원시는 지난 10일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해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 예산 총 2,260억원을 신청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업인 대표, 업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예산 신청(안)에 대해 예산 신청내용의 타당성, 농정방향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했다.

2027년 분야별 예산 신청 규모는 총 101개 사업에 2,260억 원으로, 67개 자율사업 1,395억 원, 34개 공공사업 865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재해위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정비와 미래형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에 따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공익직불제 등 농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시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예산 신청안을 이달 중 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신규 업소 모집

순창군이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업소 모집에 나섰다.

군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로 외식업을 비롯해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체육시설, 학원, 수선업, 세차장, 사진관,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표찰을 교부하고 종량제 봉투, 주방용품, 위생복 등 업종별 맞춤형 소모품을 지원한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소양농협 농업인 자녀 희망장학금 전달

완주군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은 11일 소양농협에서 '농촌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사업은 농업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가정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업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차세대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유해광 조합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양농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故 박남재·이세하 작가 사제전 옥천골·섬진강미술관 동시 개최

순창군은 오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국 자연주의 회화의 거장 故 박남재 화백과 이세하 작가의 기획초대전(사제동행전)'기억의 공명, 선율의 흔적'을 개최한다.

순창공립미술관 본관(옥천골미술관)과 기획전시실(섬진강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두 전시관에서 동시 진행되며, 스승과 제자가 예술적 정신을 공유하며 이어온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故 박남재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자연주의 회화의 깊이 있는 세계를 소개하고, 본관에서는 이세하 작가의 작품과 함께 두 작가의 예술 세계가 공명하는 사제전 형식의 전시가 마련된다.

故 박남재 화백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 온 한국 자연주의 회화의 대표 작가로, 강렬한 붓질과 생동감 있는 색채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시간의 흐름을 화면에 담아왔다.

이러한 스승의 예술 세계는 제자인 이세하 작가의 작업에도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세하 작가는 클래식 음악의 구조와 리듬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자연과 생명,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는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청소년 맞춤형 인공지능 상시 교육 확대

완주군이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자 2025년에 이어 올해도 '피지컬 에이아이(Physical AI) 교육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11일 완주군은 '인공지능(AI)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 3곳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교육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단순 이론 위주의 코딩 교육에서 벗어나 로봇과 센서를 직접 제어하는 피지컬 컴퓨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자율주행 로봇 체험과 인공지능 동화책 제작 등으로 얻은 성과를 발판삼아 올해 더욱 심화된 교과과정을 선보인다.

시설은 특성에 맞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은 로봇 공학과 전문 코딩을 결합한 '피지컬 에이아이(AI) 커리어 스쿨'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을 쌓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알고리즘 교육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며, 청소년수련관은 가상현실(VR) 인지 검사 및 인공지능 융합 창작 활동 등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을 제공한다.

오는 9월에는 기술 경연과 체험을 결합한 '글로벌 케이(K)-청소년 에이아이(AI) 대축제'를 열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 실시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18일까지 7개 읍·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수리는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운기·예취기·관리기·엔진톱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리가 진행된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봉사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점검과 수리를 지원한다.

또한 50여 종의 공구와 각종 부품을 사전에 확보해 경미한 고장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무상 지원을 병행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농기계 점검 및 정비요령, 올바른 관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을 함께 안내해 농업인이 스스로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로켓 타고 우주 가자!' 순회전시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이 내달 15일(13:00~20:00)까지 전시콘텐츠 무료 순회전시 '로켓 타고 우주 가자!'를 진행한다.

전시장은 반디랜드 내 반디별천문과학관 특별전시실에 마련되며, '우주개발 개념·기술·활용', '우주개발', '우주 직업 체험'을 테마로 한 10종의 전시물과 만날 수 있다.

전시물은 지난해 (사)한국과학관협회에서 개발한 △우주발사체를 비롯한 △인공위성,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인터넷서비스, △국제우주정거장, △달 자원개발, △화성 지구화, △우주개발 직업 찾기 등이다.

박제훈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대장은 "고품질의 다채로운 전시콘텐츠가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관람객 유치는 물론,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전역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화활동 동참

진안군이 군민과 함께 '청정 진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군은 11일 기관·사회단체 회원과 진안군청 공직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군의 주요 하천인 진안천을 비롯한 진안읍 시가지 일대에서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주민과 기관·단체가 함께 생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를 비롯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기관·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해 청정 진안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진안천 △상림천 △내사양천 등 주요 하천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진안읍 시가지 주요 도로와 골목 일대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번 활동은 매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하천 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전북 도민의 주요 식수원인 진안 용담호의 수질 보호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를 더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무이자 융자로 최대 5천만원

장수군은 오는 16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해 △청년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 최대 4,000만원 △신혼부부(1자녀 이상 가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올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기간이 확대돼 1자녀 가구는 최장 8년, 2자녀 이상 가구는 최장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머무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KBS전국노래자랑 준비 '만전'

12개 읍면·관내 유관기관 등 찾아가는 홍보 주력

임실군이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KBS 전국 노래자랑 임실군편'을 전 군민의 화합의 장이자 가요축제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군은 26일 진행될 예심을 앞두고 군청과 12개 읍면에서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와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 중인 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전국노래자랑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2개 읍면과 교육지원청과 농협 등 관내 유관기관,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을 비롯하여 35사단 군부대와 관내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5월 28일~5월 31일까지 임실의 대표관광지인 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서 처음 개최하는 '임실N장미축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접수 창구에는 노래자랑 참가 문의가 이어지며 본 경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참가 신청은 3월 17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홍보담당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망의 본선 녹화는 3월 28일 오후 2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노래경연을 넘어 지역의 대표 관광지에서 군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재능과 이야기를 선보이는 화합과 문화 공유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 당일에는 약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교통 및 주차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이번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임실치즈의 우수성과 치즈테마파크의 복합문화관광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향후 축제 시즌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결혼이주여성 간담회 개최

베트남·필리핀·중국 등 6개국 결혼이주여성과 지원방안 논의

장수군은 지난 10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에서 결혼이주여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15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소통데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재 추진 중인 다문화 지원사업의 운영 방향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교육·복지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진행

농업인·외국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

무주군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재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 중인 농업인과 외국인, 학생 등으로 무주군은 경로당, 반딧불농업대학,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현장 검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수칙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요 증상 및 예방수칙,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결핵 검사, △약물 오남용 예방(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 등), △C형간염·장내기생충 예방수칙 등을 교육할 예정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감염병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한다.

특별히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과 어르신들에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증 등 12종의 장내기생충 무료 검사도 진행하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는 무주군보건의료원 내과 진료(간 기능 검사, 치료 약 지원) 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혈액에 의한 감염으로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C형간염'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 키트를 활용한 방문 검진을 진행한다. 항체 양성자에게는 확진 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107주년 오수 3.10만세 기념 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주관으로 지난 10일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임실군>

임실군, 제107주년 오수 3.10만세 운동 재현

독립위한최초학생만세운동기려

'제107주년 오수 3.10만세 기념 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회장 장양축) 주관으로 지난 10일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1919년 3월 10일 당시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식이 됐다.

이날 행사는 박현숙 임실부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한 각계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학생, 독립유공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수 3.1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재현행사, 시가행진 등으로 진행됐으며, 3.10만세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선조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2026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임실군이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이다.

임실군은 7월 14일까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8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로 연1회 수령할 수 있다.

임실군이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와 '소통의 장' 마련

지역 현안 공유·협력 강화 논의

장수군은 지난 1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와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의 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장동엽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장, 정종근 지도자협의회장, 이맹순 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 15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행정과 새마을운동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 환경개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마을운동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봉사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노력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동엽 군지회장은 "장수군에서 마련한 소통의 장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는 환경정화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새마을운동이 긴밀히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가족센터, 무료 가족상담 지원

가족 갈등 예방·관계 회복 도와

임실군가족센터는 지역 주민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갈등 예방과 관계 회복을 돕는 무료 전문상담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부부, 부모·자녀,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개인 대면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상담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주 1회, 회기당 50분으로 진행되며, 부부 및 가족상담은 총 10회기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56)으로 전화하거나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임실군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계 회복의 열쇠"라며, "더 많은 가정이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부안군 안전회,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9일 부안군 안전회 최기선 회장과 회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안전회는 정년퇴직한 부안군 의용소방대 읍·면 대장 33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오랜 기간 지역의 안전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 역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담아 회원들이 뜻을 모아 참여한 것으로 군민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최기선 회장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농협은행 임실군지부, 농촌유학생 가족 위한 성금 기탁

1,000만원 지정 기탁 농촌유학 활성화 힘 보태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가 11일 임실군을 방문해 농촌유학생 가족을 지원해달라며 임실군애향장학회에 1천만원을 지정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농촌유학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농촌유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잇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촌 교육의 미래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기탁금은 임실군으로 전입해 생활하고 있는 농촌유학생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 이재문 지부장은 "농촌유학이 농촌학교를 살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농협은 농촌유학이 교육귀촌과 농촌이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농협은행 임실군지부가 11일 농촌유학생 가족을 지원해달라며 임실군애향장학회에 1천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사진=임실군>

남원 이백면지사협,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지원금 전달

남원시 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명엽, 황도연)는 관내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이백초, 오동초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들의 교육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추진됐다.

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명엽 위원장은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백면 황도연 면장은 "이백면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백면에서도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기초수급 어르신, 연탄 300장 기부

"더 어려운 이웃 위해"

완주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껴온 연탄 300장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것 같다"며 기부 의사를 전한 어르신의 뜻에 따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의 나눔에 의미를 더하고자 직접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이웃의 온기를 채워주기 위해 모인 참여자들은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연탄을 날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어르신과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어르신은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마음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월명동 '왕십리진곱창', 착한가게 37호점 가입

군산시 월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상귀정, 민간위원장 임광빈)는 11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한 '왕십리진곱창'(대표 진미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왕십리진곱창 진미숙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해온 만큼,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며 "착한가게라는 뜻깊은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눔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귀정 군산시 월명동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주신 진미숙 왕십리진곱창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월명동이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 흥덕면-정읍 농소동, 기부금 상호 전달

고창군 흥덕면(면장 류정선)과 정읍시 농소동(동장 유경희)은 지난 10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상호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류정선 고창군 흥덕면장과 유경희 정읍시 농소동장은 같은업무를 하면서 만나 지역활성화, 소멸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 상생등에 대해 논의하며 자주 왕래했다.

흥덕면과 정읍시 농소동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는 지역간 상호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류성선 흥덕면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상호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주삼천신협, '전주함께라면' 후원 동참

전주삼천신협은 11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 추진을 위한 라면 1500개(15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전주함께라면' 공간에 전달돼 라면을 매개로 고립 위험 가구를 자연스럽게 발굴하고,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최태일 전주삼천신협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의 따뜻한 나눔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익산 동산동지사협, 취약계층에 밑반찬 지원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명경·심현무)는 11일 '건강-업(up) 밑반찬 지원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건강-업(up) 밑반찬 지원사업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건강한 식사를 돕는 사업이다.

올해 10가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밑반찬을 지원한다.

반찬을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된다"며 "혼자서는 챙기기 어려웠던 식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고맙다"고 전했다.

심현무 민간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一事一言〉

출렁이는 증시… '정부 시장 안정책'이 최고의 부양책(2)

홍종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경고하고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시장의 문제점들을 알려주는 경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 투자자가 버티기 어려운 변동성이다. 해외 연기금·대형 자산운용사는 '고수익' 만큼이나 '예측 가능성'과 '변동성 관리'를 중시한다. 최근 한국 시장의 특징은 하루는 폭락으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다음 날은 폭등으로 인해 다시 선물시장 거래를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수 전체가 며칠 사이 20% 하락 후 10% 반등하는 기록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은 단기·퀀트·고빈도거래(HFT)·레버리지 자금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10년 보고 투자하겠다"는 연기금 스타일 자금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결국 코스피가 세계 이슈의 중심에 서 있을수록, 역설적으로 '진득하게 버티는 외국인 장기 자금'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자본시장에서 벗어나 투기장화 되고 있다는 의미다.

둘째,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이다. 비앙코 대표는 한국 시장이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단기 돈놀이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연금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은 20% 정도 내외다.

이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개인투자자는 레버리지·옵션·단기 매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감정적 의사결정에 노출되기 쉽다. 개인 비중이 높은 시장은 '완만한 조정'보다 '과열 후 급락' 패턴을 반복하기 쉽다.

개인의 동시적 쏠림이 '한 방향으로 몰렸다가 한 방향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버티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극단적 변동성은 개인에게 '기회'가 아니라 '탈진과 이탈'을 남기기 쉽다. 무엇보다도 기관들이 모멘텀 투자로 시장을 이끌어갈 때 이를 추종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반도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40% 내외인 한국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집중형 단일 팩터 시장'에 가깝다. 두 개 반도체 대형주의 비중이 지수의 40%에 달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시장 구조이다.

글로벌 메모리 가격 사이클·AI 투자 사이클 변화가 곧 '한국 시장의 운명'이 된다. 따라서 산업·섹터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지수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곧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에 배팅하는 것과 비슷해진다.

AI 호황과 함께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릴 때는 이 구조가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사이클이 꺾이거나 자본 지출(CapEx)이 조정되기 시작하면 지수 전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과격하게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는 위험을 분산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건전한 장기 자본시장으로서 큰 결격 사항이 된다.

넷째, 모멘텀 트레이딩과 변동성의 증폭이다. 최근 한국 시장 변동 패턴에서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은 '추세 추종형 기관·퀀트·알고리즘'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오를 때는 '고가 돌파 → 추가 매수'가 반복되며 상승 탄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꺾이기 시작하면 '손절매 알고리즘 → 역추세 레버리지 → 헤지 포지션 확대'가 겹치며 하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다.

즉, 지금의 급등락은 단순한 개인투자자의 공포와 탐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글로벌 모멘텀·퀀트 전략의 '가속 장치'가 붙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 환경에서는 "저렴해 보이는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겠다"는 오래된 투자 방식이, 생각보다 큰 손실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인도의 'Jane Street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리스크'이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시장에서 급등락이 반복되면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선물과 옵션을 이용한 작전거래를 통해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인도에서 퀀트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제인 스트리트(Jane Street)사는 고도화된 알고리즘·고빈도거래(HFT)를 통해 시장을 교란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현재 인도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 시장은 파생상품·옵션 거래 비중이 매우 크고, 개인 중심 구조에 모멘텀 기관·퀀트 자금이 뒤섞여 있으며, 규제와 감시가 이런 최신 알고리즘 구조를 얼마나 따라잡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이 조합은 '제인 스트리트식 사건'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다. 특히 만기일, 지수 리밸런싱일, 옵션 대량 포지션이 걸린 시점에는 '가격을 특정 방향으로 잠깐만 움직여도'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개인은 그저 '이상한 급등락이 한 번 있었다'는 뉴스만 접하고 지나가겠지만, 그 뒤에 어떤 알고리즘·전략이 작동했는지는 대부분 알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이 같은 '합법적 차익거래'와 '실질적 가격 조작'의 경계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투기 자본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전북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골든타임' 지켜내자

응급의료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 단 몇 분의 지체가 환자의 생사를 가르고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줄이고 치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북·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그동안 현장 구급대가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병원 과밀화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3단계 병원 선정 체계' 도입이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 선정을 시작하면 우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센터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이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병원 선정 범위를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접 지역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15분이 지나도록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광역상황실이 직접 개입해 병원을 지정하고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우선수용병원 제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병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일단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 초기 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필요하면 최종 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방식이다. 급성심정지와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8대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기준도 정비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단순히 병원 선정 방식만 바꾼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수용 역량과 의료진 확보,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그리고 광역상황실의 신속한 판단과 조정 능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행정 절차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소방본부와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현장 구급대원의 의견과 의료진의 경험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응급의료 체계는 지역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전북은 물론 전국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전북도가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생명은 그 어떤 행정 성과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열전

선운사범종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공예, 의식법구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선운사로 250 (아산면)

▲오늘의 시

매화 / 정호승

퇴계 선생 임종하신 방 한구석에
매화분 하나 놓여 있다
매화분에 물 주거라
퇴계 선생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소중히 받들기 위해
매화분에 매화는 피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통장에 돈 찾아라
한 마디 남기고 죽을까봐 두려워라
낙동강 건너 지구에는
오늘도 한창 꽃이 피고 있다
도산서원 매화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은
어디에 가서 죽는가
새들은 꽃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은 나를 보고
죽더라도 겨울 흰 눈 속에 핀
매화 향기에 가서 죽으라고
자꾸 속삭인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군, 도시 변화 집약

‘10대 뉴스’

전북 고창군이 기업유치와 해안관광개발, 돈버는 농업으로 무섭게 닥쳐오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 먹거리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민선 8기 고창군의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1.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2.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 허브단지 착공식
3.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 선포식
4.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식
5. 영선고 야구부 지원 지정기부금 전달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
서해안권 관광벨트 개발·대형 축제 흥행
생활·경제 체감도 ↑

1.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 및 알짜 기업유치=삼성전자가 고창 스마트허브단지의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착수 15년여 만의 국내 재계서열 1위 대기업 분양의 성공신화를 쓰게 됐다. 이외에도 전력반도체 웨이퍼 소재 등을 생산하는 지텍을 비롯해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에스비푸드, 에너지저장장치 소재 기업인 손오공머티리얼즈 등 국내 다수의 기업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2. 방문의해 대성공 및 세계유산도시 고창 브랜드창출=고창군이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선포하고 1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이어지는 관광도시를 만들었다. 모양성제를 군이 직접 주관하면서 축제 콘텐츠를 강화했고, 꽃정원, 전통예술체험마을, 고창그린마루 등과 연계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렸다.

3. 용평리조트 투자유치 등 서해안권 관광벨트개발=국내최대 스키장을 운영하는 용평리조트가 3500억원 정도를 투자해 대형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을 짓는 사업이 내년 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 중견기업 4곳이 3000억원을 투자해 명사십리 일대에 리조트와 숙박, 스포츠, 휴양·레져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4. 고창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성사 등 실질소득 향상=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제가 실현돼 마침내 첫 출하가 이뤄졌다. 명품수박은 1덩이에 500만원의 경매신기록을 시작으로, 고창군 전체 수박의 도매시세도 끌어올리며 지역농가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줬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전국 최대인 3100여명까지 늘었고, 전국 최초로 농업기숙사를 준공하면서 지역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했다. 또한 농업보조사업 서류간소화와 재해보험료 지원, 최저가격보상제를 안정적으로 시행중이다.

5.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등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는 농림부 공모선정과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선정 등으로 저온저장고와 절임가공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 순항중이다. 고창군농업인회관이 건립되었고, 농촌협약 14개소 대상사업과 이와연계된 30개소 사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북부권인 흥덕면과 성내면에선 300억원을 투입해 흥덕체육관 건립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6.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청년 주거복지 정책=총사업비 1777억원을 투입해 교통·주거·청년창업 등을 엮은 고창의 중심지 재편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공개된 조감도에선 명쾌한 동선계획과 공간구성, 도시활력 거점으로서의 상징성이 표현되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210세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0세대, 청년특화임대주택 40세대 등 총 450세대의 청년주거주택을 짓고 있다.

7.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등 체감형 민생경제정책 훈풍=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을 통해 민생회복과 지역활력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높이고, 가맹점 사용처를 확대해 면단위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착한가격업소도 54곳으로 확대했고, 업소당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8.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및 보훈회관 신축·독립운동가 추가서훈=도시 한 중심에 고창출신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고, 민주주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이전·개관하면서 혁명 성지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 보훈단체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개관하고, 3.1절·광복절·순국선열의날 등을 계기로 총 14명의 독립유공자가 추가로 서훈되며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116명에 이르고 있다.

9. 어르신 보건의료 3대 정책 등 촘촘한 복지=마을 주치의사제로 고창군 전체 경로당과 섬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상담을 진행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했고,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99%에 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장려금 확대, 산후조리비지원, 출산·육아용품전문 판매점 운영 등 아이낳고 좋은 고창을 만들고 있다.

10. 고창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고창을 사랑하는 인연의 끈은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져 고창에 17억2500여 만원(3년누적)을 기탁했고, 사이버고창군민, 고창마켓 농특산품 구입 등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70년 이상 고창군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신 551명에게 뿌리고창인 증서가 수여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2026년에는 구시포 붉은 노을과 함께 질주하는 적토마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자존심을 높이고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해 고창이 더 큰 도약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